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RT & Critic
변상환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일시 : 2016년 3월 6일 (토) 오후 4:00 - 6: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패널 : 권오상, 이정형

김인선 : 오늘 저희가 변상환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의 이름은 'PT & Critic'입니다.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첫 개인전을 하는 신진작가에게 PT&Critic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작가와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사전 토크도 하고 비공개 혹은 공개로 행사를 개최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상환 작가님의 개인전을 하면서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계속 얘기를 나눠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해주시는 작가 두 분과 함께 사전토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오상 작가와 이정형 작가가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권오상 작가는 사진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매체를 입체적으로 다루어왔고 그 사진의 평면적인 특징을 조각적인 무거움으로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전의 효과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매체에 대한 특징을 잘 다루어 온 분입니다. 조각, 입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시가 조각의 특징이 강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모였습니다. 이정형 작가님은 입체를 다루는 대표적 젊은 작가이며 여기서도 개인전을 한 번 했는데 일상의 오브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작업이나 활동사항을 찾아보면 어떤 작업인지 대략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업을 소개해 주실 변상환 작가님입니다. 변상환 작가는 제가 수업을 나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작가를 볼 때 작업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업을 만들 때 과정이나 사고과정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인상으로 남았고 여러 가지 오브제나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의 작가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세대가 참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나마 얘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나 코멘트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작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의견이나 질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작품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변상환 : 일단 과거 작업들을 비교적 시간 순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재료는 시멘트로 주주바를 캐스팅 뜬 것인데 이 당시에 제가 '화석화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작업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쉽게 상하고 물렁물

렁한 물성이 있는 것을 광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해서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주주바 화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은 학부 때 했던 작업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마호가니 않은땀이 밥상이 용도폐기 되어 버려진 것을 제가 주위와 식탁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다시 실용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오른쪽 작품의 상자는 꿀 향아리를 포장하는 상자였습니다. 원래 프린트되어 있던 산 모양, 산수화 같은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위에 산 모양의 조각을 하고 그 위에 피규어를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 때 유행했던 원목가구인데 요철이 심한 부조조각으로 되어있는 장롱문짝을 주었습니다. 장롱문짝의 부조를 탁본을 떠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위에 한 시를 적었습니다. 국악음계를 표현하는 정간보를 보게 되면 서양음계와 똑같이 한글로 게이름을 만들 수 있는 '중 임 무 황 태' 시스템을 바탕으로 게이름을 치환한 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퇴 퇴 임 퇴 퇴 심'은 송대환의 노래 <네 박자>의 '쿵짝 쿵짝 쿵짝 쿵짝' 부분을 게이름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주바 화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간장게장의 게를 캐스팅해서 간장게장 화석을 만든 것으로 제목은 <밥 도둑>입니다. 그 때 하던 작업들의 디스플레이는 나무 케쪽에 공간에 옮겨온 듯한 인상을 주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왼쪽은 같은 방식으로 배추를 캐스팅한 것이고 오른쪽은 소주병을 화석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붕어빵과 호두과자이고 재료는 다 시멘트입니다. 이 작업은 폐허가 됐거나 철거 중이거나 길가에 버려져 있는 폐 콘크리트를 주위와 쪼아서 조각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크로커다일>이고 보시다시피 고무장갑 화석입니다. 이 작업의 재료는 크기가 다 다른 종이컵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종이를 V자로 하나하나 오려서 쌓아 붙여서 아랫부분으로 모이게끔 형태를 만들었고 속은 다 비어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최근 작업들인데 주먹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볼 수 있는, 용도는 모호하지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돌들을 어느 순간 유심히 보게 되었고 이것들이 마치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돌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형식 실험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이 사진 작업이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장시간 노출을 하면서 만들기도 했고 다음은 입체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돌이 놓여있던 장소, 주소지를 캐스팅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의 전체 환조가 아니라 돌의 밑면이 지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얇게 캐스팅했습니다. 안보이던 부분을 전시장에서 얇은 부조 형태를 통해 장소를 보여주었고 제목은 돌이 놓여있던 장소의 주소지로 지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바닥에 놓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작업으로 원형거울을 가지고 주먹가의 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이 있는 곳에 원형거울을 이용하여 자연채광을 반사시켜 조명을 주고 촬영을 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돌들이 골목의 후미진 곳이나 담벼락보다 낮게 있었기 때문에 일조량을 받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자연광을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이 놓여있던 장소가 각각의 작품 제목이 되었습니다. 돌들이 서울 시내 아무 곳에 있거나 하면 찾아가서 촬영을 하거나 캐스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막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컨셉을 정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범위를 줄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서울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3년 째 살고 있는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원래 낙산이 자연형태 그대로의 기운이 강한 골산이었습니다. 일제 때 이곳을 채석장으로 사용했고 음각의 간에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지금의 밀도 높은 창신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창신동에 가보면 돌을 캐냈던 흔적인 절개지가 있습니다. 돌을 떼어내서 생겨난 인위적인 절벽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돌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돌과 관련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장소를 서울 전체가 아니라 창신동 채석장 아래의 마을 동네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자는 생각으로 현재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업들은 50% 촬영을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작업이고 자연광으로 촬영해야하다 보니 겨울 동안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봄이 오고 있으니 시간이 될 때마다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시장에 있는 작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시의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물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수터에서 볼 수 있는 손잡이가 긴 바가지였는데 바가지 바닥의 프린트된 문구를 보면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숙취로 고생하고 있을 때 글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용기’를 영어 ‘bowl’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bravery’ 혹은 ‘courage’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적어놓았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가 전시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깎아서 무엇을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를 접하면서 전시에 대한 구상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제목도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는 그릇, 볼의 용기가 아니라 ‘courage’의 뜻을 가집니다. 큰 조각은 바가지의 손잡이 끝 부분, 구멍이 뚫려서 어디에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제작한 작업으로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의 마지막 단어를 사용해 제목을 <용기>라고 지었습니다. 벽돌 형태를 연결하여 납작하게 만든 작업의 제목은 <Maxlife>으로 플로랄폼의 규격이 저 크기입니다. 그 위에 구멍 세 개를 뚫고 옥상방수 우레탄을 바른 것인데, 실제로 ‘Maxlife’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쓰임새를 봤을 때 식물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삶을 만들어주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여 <Maxlife>라고 지었습니다. 그 내용과 뜻도 저에게 흥미로워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석의 작업 제목은 <Nowhere>인데 사진 작업의 실제 돌을 1:1로 깎은 조각입니다.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오아시스와 옥상방수 우레탄인데 각자의 성격이 정반대이면서 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공통점이 몰입니다. 하나는 방수성 다른 하나는 침수성으로 상충하지만 공통점이 있는 재료들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작품들이 앞에 있는 작은 조각들인데 석기시대 초코볼이라는 과자를 보고 형태를 재현한 것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반응, 이 전시에도 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싶어 물을 받아서 조각들을 띄어놓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인데 그러기에는 직설적이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모

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무인도나 작은 사구갈다는 생각을 했고 제 조각들이 표류를 하다가 정착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김인선 : 꽤네 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상 : 제가 변 작가님과 이 행사를 하기로 한 이후에 어제 보였고 그 전에는 검색을 통해 조사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더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들을 오늘 보여주시는 않았는데 보여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 본인의 생활 속에서 작업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보였고 전후사정 관계없이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라는 전시 제목을 봤을 때는 미술계에 던지는 선언 같기도 했고 앞으로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 같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한 작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같이 얘기해줄 수 있고 같이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산돌 사진 작업을 좋게 보았습니다. 검색해서 봤을 때 좋은 작품이 눈에 많이 띄었고 사진으로 표현된 작품이지만 돌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보여주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상징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돌을 보는 문화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수석을 2016년에 모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다시 그때를 보는 듯한 감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는 것 자체가 조각을 감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현된 대상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은 조각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방수 페인트로 녹색이 칠워져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한국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표류한 뗏목도 지금 처해있는 한국, 미술계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나 낙산돌이라는 작품을 정제하는 것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나 공간 설정이 스마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게 보고 있고 저도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여주셨던 작업을 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고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저는 특별한 소재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지금 당장 작품을 만들어내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변상환 작가님은 소재를 선택하는 범위의 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환 : 저는 손에 닿는 거리보다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영감의 원천들이 없고 제가 사는 집 근처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버려지거나 용도 폐기된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김인선 : 유난히 젊은 작가들이 일상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법에서 본인만의 시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환 : 무엇을 찾는다는 것에 공식이 있지는 않고 무심결에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보이다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거리에 버려져 있는 장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현재의 아이폰같은 사물에는 흥미가 없고 아슬아슬하게 동시대에 있지만 가까운 과거를 간직한 사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작업의 소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형 : 저는 변상환 작가의 작품을 보았을 때, 감각이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세련되고 깔끔한 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변상환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조각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조각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범주에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작업을 보면 조각의 물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돌을 찍은 사진 작업들도 길에서 찾은 오브제들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조각 작품처럼 보일 수 있을까란 고민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오아시스와 방수제, 왜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조각 작품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니 물에 뜨는 조각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오아시스는 물을 흡수하는 재료이고 방수제는 물을 뺏겨내는 재료인데, 상반된 성격의 두 재료가 만나서 물에 뜨는 조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변상환 작가의 작품들은 조각에 대한 실험과정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본인 나름대로의 조각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작업을 하는 작가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개인전에서 신작으로 구성을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상환 : 이번 전시에는 새 작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전시 제의를 받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업은 이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작업에 살을 더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링엔딩링 전시공간도 평면작업보다 입체작업이 있을 때 더 좋은 전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스토리성이 강한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형식적인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조각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조각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좋은 조각이란 만지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은 촉감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좋은 조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 이전의 작업들을 보면 미술이 포함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 전시를 보고 든 생각은 이 요소들 중 많은 것이 빠져나가고 언어란 요소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에 쓰는 녹색 페인트를 보고 즉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현대미술로서의 전략적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환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 작업이 매우 개성이 강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도 한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내용보다는 재료의 조합을 통해 소재가 주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시에서 보여드린 작업은 이것으로 완결된 것이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거나 계속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작업했으니 이것들을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많이 했습니다.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면서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업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작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상 : 제가 변상환 작가와 열두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세대의 작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변상환 작가의 작품을 처음보고 든 생각은 제 다음 세대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이전 세대 작가들의 감성이나 감각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기도 했고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어떻게 보면 애증의 대상인 윗 세대들의 느낌... 아니면 홍상수 영화에서 나오는 창신동 뒷골목의 느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국제무대에 진출한 경험도 있고, 한국의 대안공간 시스템에서 데뷔를 한 후 상업갤러리 시스템에 편입한 저 같은 작가의 감성과는 반대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느낌이 싫은 것이 아니라, 경험해본 익숙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환 작가님은 첫 개인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은 이전 세대의 감성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변상환 : 제가 한때 배영환 작가의 작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초반에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었고 배영환 작가의 작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배 작가들의 스타일이나 방법, 시점 같은 그런 것들에서 많이 탈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작업을 통해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일기 같은 작업이 아니라 내 작업을 통해 역사나 사회 같은 더 넓은 범위의 것들을 획득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만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상 : 그것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는 한국을 더 많이 담고 싶어 하고 다른 작가는 아시아를 혹은 2000년대를 담고 싶어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선배 세대의 작품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르니, 같니를 질문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 또래의 작업하는 친구들은 '굿즈'를 통해서 한국을 흔들었던 젊은 작가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선배 세대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변상환 : 제가 제 또래 작가들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작업을 힘을 많이 빼고 시작합니다. ‘나는 세계적인 스타 작가가 될 거야.’ 혹은 ‘역사가 기록할 만한 큰 작가가 될 거야.’와 같은 욕망은 없는 것 같고 저도 그것을 기저에 두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조금 더 소소하고 일상과 맞닿아 있는 작업을 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성 작가에게 “그럼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데?”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하면서 작업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고 책을 읽어보며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험은 IMF로 망한 집안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주눅 드는 태도와 패배주의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작가로서의 세대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김인선 : 작가 개개인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환경, 사회가 이렇다는 큰 특성으로 묶이기도 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세대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오상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세대인데 우리가 젊은 세대로 불릴 때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미술계에 대해 혹은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권오상 : 이 자리에 변상환 작가님과 비슷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은 그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99년도에 대안공간 루프를 통해 데뷔를 했고 2001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 어제 작가에게 제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150만원 벌면서 작업하고 월세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교 앞 전세 원룸에서 살았고 용돈을 받으면 되었고 알바를 많이 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전도 하고 그룹전에 참여도 하면서 용돈으로 책도 내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는 사진으로 조각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학교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폴리코트로 사람을 떠내는 것과 사진으로 조각을 만드는 것과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좋은 것을 하느라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없는 돈을 유지하면서 몸을 가장 적게 쓰면서 빨리 조각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99년은 뉴밀레니엄이라고 해서 2000년이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바뀐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40세 작가들은 대가 뒤에 줄을 서며 기회가 와서 선생님들이 열어주는 전시를 자기 돈을 들여 조각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그 다음 전시를 위해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가 언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술관이나 대안공간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전시를 했고 그들이 새로운 작가처럼 느껴져 대안공간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민 미술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때는 가장 중요한 미술관이 아트선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트선재의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아트선재 포트폴리오가 국제적으로 나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처럼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래들이 지나 함진, 조습, 김기라와 같은 70년대 초, 중후반 작가들이었고 IMF 직후였기 때문에 유학을

갔던 저보다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도 제 또래에 많았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상업 미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금과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기금 받아 전시도 조그맣게 열면서 데뷔를 하고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이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인선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때 활동했던 작가들인 10년, 15년 전부터 활동했던 작가들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90년대, 80년대 생 작가들의 성향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를 기점으로 해서 윗세대들은 사회적인 요소를 넣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1세대 큐레이터 한 분이 저에게 요즘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은 국가나 현재 상황의 이슈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가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세대부터는 사회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현재 그것이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동시대 미술이다 보니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도 세대 차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서 봐야한다는 생각을 기획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은 질문, 코멘트를 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객 :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술 작업이 사회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혹은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변상환 : 저도 큰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현상을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미술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를 담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잘된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이 아니라 풍경을 보여주면서 사회성이나 역사성을 획득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래야 내 작업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원하지도 않고 첨예하고 싶으면 집회를 나가면 되고 미술에서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관객 : 아까 김인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줄어들고 주변 혹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어간다는 전체를 하고 분석해보면 사회적인 관심은 갖되 직접적인 언급이나 태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해봤자 소용없다는 절망, 학습된 비판이나 예술로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식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선 : 아마 어떤 작가들에게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비중이 커진 것 같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변상환 작가의 작업은 한국적이고 권오상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회적인 패배감이나 절망감이 비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같이 못생긴 초록색을 옥상에 칠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 공간에서 보면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예쁘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주병이 놓여 있는 것은 어떤 스토리의 한 가닥을 연상하게 하고 술병이 나뒀구는 어떤 풍경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 돌멩이들이 알고 보면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따라서 표현한 작업이었구나, 실제 모습이 무엇이었다고 알아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작가 자체가 사회에 대해 발언는 태도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태도인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형 : 여기에서 술병이 없다면 작업이 완전히 다르게 설명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그 이야기를 어떤 작가분이 하셨습니다. 소주병이 없고 차라리 모호한 느낌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하고 가셨습니다.

변상환 : 그런 크리티컬을 많이 들었고 소주병을 짚게 된 것은 별 이유 없이 작업실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고 모호한 것만 짚다 보니 예민해지면서 구체적인 것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소주병을 놓으면서 저것 때문에 작업 전체를 청승맞게 보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소주병이라는 것이 다른 초록과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물건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확대 해석해서 한국미술계나 우리 세대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승맞게 보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관객 : 아까 질문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적인 것, 동시대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부분을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변상환 : 일단 저의 작업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자하는 바가 있고 참여할 갈등의 지점은 아니지만 갈등을 지나서 뒤안길로 놓여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근대화에서 학습되어진 듯한 컬러나 참여할 갈등의 지점은 아니지만 그 상태를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붙어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언을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 보이지 않는 것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 제 스스로 검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받아 온 미술교육에서 그것은 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상 : 그것은 미술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상환 : 사진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 다큐멘터리, 보도사진, 예술사진과 같은 장르가 참여하고 애매모호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검열처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선 : 명확하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애매하게 남겨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상환 : 저는 전시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미술계가 더 재밌고 다양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관객 : 저는 이 전시의 작업들을 보면 변상환 작가가 애매모호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브제들이 갖고 있는 재료의 물성들, 침수성과 방수성을 섞는다든지 사이즈를 키우는 것을 통해 모호성, 이중성에 대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뀌처럼 보이지만 <석기시대>라는 초콜릿을 재현한 것이라는 지점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로 규정짓는 정의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구체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주병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작가가 저입니다. 다른 작업들에서는 형식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현대적인 재료와 태도로 전통적인 조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주병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소주병이 다른 오브제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소주병을 다른 오브제처럼 대하지 않은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관객 : 제가 모호하다고 했던 것은 방수와 침수를 섞는 것을 모호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적인 풍경들을 새로운 언어로 재현하고 있는데 소주병, 공중목욕탕에서 쓰는 바가지의 끝 부분, 초코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데 비판적인 시각도 아니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나 시각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김인선 : 질문하신 작가분의 작업성향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를 뽑아내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객 : 저도 오브제를 다루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브제를 대할 때 태도들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각적으로 접근하게 되거나 필요할 때 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 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을 더 잘 쓰시는 분들이나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얻게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상환 : 이미해 작가님 얘기해주셨던 부분은 흥미롭고 제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하면서 제 작업들에 대해서 감정적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감각적으로 작업을 접하게 하면서 언어로 풀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구조를 짜면 대부분 말로 설명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감각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논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면 저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선 : 같은 질문을 두 패널 분께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보면 주변에서 해석을 본인이 한 것보다 잘 하거나 의도치 않은 지점을 끌어내주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경험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형 :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빠와 살을 붙여주셔서 평론가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맥락 속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모든 것을 계획 하에 진행하지는 못하고 하다보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 변수들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지고 지랑 같은 세대가 보는 것과 윗세대 혹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와 차이가 많았습니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젊은 작가라는 것을 감안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업이 큰 틀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고 규정지를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는 열려있던 것 같습니다.

권오상 : 저도 마찬가지로 작품에 대해 대답을 할 때는 읽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형식적인 내용이라든가 만드는 과정 정도만 설명합니다. 대부분 글이 나올 때는 과정까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줬으면 합니다. 조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브제, 조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생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거기서 거기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세대가 보든지 읽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범위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일반적인 범위에서 사람들이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이것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오상 : 제가 생각하기에 제 또래부터는 전업 작가와 선생님을 하는 작가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또래들 중에 전업 작가가 굉장히 많은데 확실한 것은 10년이 지났더니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지 50, 60일 때 어떨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시도 많이 하셨던 작가들을 전시장에서 만나면 생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형 작가님도 작품을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승화되어 작품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흥미롭게 보고 있고 변상환 작가님에게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변상환 : 저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작품 설치,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에 관하여 잠잠하다가도 한 번씩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예술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작가들은 아티스트 피와 같이 다양한 요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극소수의 작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궁핍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이야기가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